

# 최수연 네이버 대표께



김승호의  
시선

최수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 대표님이 총괄하는 네이버와 스타트업 뉴러의 분쟁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신지요. 뉴러를 창업해 거대기업 네이버와 외로운 싸움을 하던 K대표는 올해 초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K대표는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하늘이 도와인지 다행히 생명을 건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후 일반병동으로 옮겨가 기역상실 등 추가 증상 때문에 다시 폐쇄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해보입니다. 펜을 쥘 사람은 약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시에 네이버와의 다름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했던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길 바랍니다. 최 대표님! 앞서 네이버는 뉴러가 출시한 '원플원'과 자사의 '원벨딜'은 다른 서비스 모델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벨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러의 원플원 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뉴러의 K대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석에 출석,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님도 국감장의 무게감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위증 등을 해선 안된다는 것 도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업비밀을 빼가고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기술을 가져갔다는 쪽과 아니라는 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을 약자가 져야하는 현실에서 피해기업이 다름에서 이기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도, 돈도 부족해 버티기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최 대표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클로바(CLOVA) X에게 네이버와 뉴러의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이버가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은 없는지 AI는 어떻게 생각할까도 궁금했습니다. 클로바 X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네이버가 뉴러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어도 관련 기술을 존중하고 뉴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이버가 뉴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뉴러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고민하는 사이 K대표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면서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다 잘될 겁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길 빌고 응원합니다." 저도 울며 이 말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최 대표님, 25년전엔 네이버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bada@metroseoul.co.kr

## 'K-방산' 경쟁력 실추해선 안돼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꼬리 자르기 VS 억지 주장' 세계 방산 시장 공략에 공들이고 있는 'K-방산'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력이 아닌 K-방산을 바라보는 세계 기업들의 신뢰와 이미지가. K-방산은 최근 2년 연속 세계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위상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육군과 공군 분야에서는 신속한 공급능력과 뛰어난 가성비, 면밀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해양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 구축함 사업(KDDX)을 놓고 벼랑끝 싸움을 예고하면서 K-방산을 바라보는 시각

도 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선주를 유치하는 조선업에서 경쟁과 법적 분쟁은 자주 발생하지만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방위사업청이 KDDX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KDDX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 2012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기밀을 빼낸 사건에 대한 징계성 조치인데 임원의 개입이 없어 1.8점 벌점만 부과하고 5년 간 입찰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중징계는 피했다. KDDX의 입찰을 둘러싸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은 치열했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를 수주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한화오션의 기대와 달리 2020년 기본 설계 사업권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갔다. 문제는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에서 합점사

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공유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화오션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도 포함됐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3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채권단 채제에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았고 당시 기술 인력들도 HD현대중공업으로 대거 이탈한 영향이 크다는 분위기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방산업계의 문제점을 들고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방산비리 카스텔을 깨고 가열되는 내전으로 K-방산의 경쟁력까지 약화되지 않도록 갈등을 봉합하길 기대해본다. /ysw@

오늘의 운세 3월 11일 (음 2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48년생 뜻밖의 초대로 마음은 즐거우나 지출도 생긴다. 60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72년생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생각. 84년생 가능성 없는 백일몽에서 벗어나자.



37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따르겠다. 49년생 기다리던 문서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1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다. 73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5년생 배우자와 다툼은 정신만 피곤.



38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50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 법이다. 62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발전이 있다. 74년생 멀리 바라보다 넓게 보이는 법이다. 86년생 어제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39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은 독이 된다. 5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63년생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친다. 75년생 온종일 기분 좋은 날. 87년생 사찰에 가서 등다는 것도 무난.



40년생 나이는 그냥 먹은 게 아니다. 52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이다. 64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나 내 자식은 커 보인다. 76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저어야 한다. 88년생 일한 보람을 찾는다.



41년생 황소자리처럼 반듯한 생각이 차곡히 정리라 잘되는 날이다. 53년생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면 실수가 없다. 65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는 날. 77년생 열매는 그저 열리지 않는다. 89년생 아는 사람끼리 돈거래 할 수밖에.



42년생 그물에 잡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54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66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운이 호전되어 사랑과 금전이 따르는 하루이다. 90년생 주고받는 것이 인생사이다.



43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물이 들어온다. 55년생 일을 벌이면 더 더욱 힘들게 되니. 67년생 한 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 매사 주의를. 79년생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1년생 오후 재물이익을 얻는다.



44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랴. 56년생 구름 속에도 태양은 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68년생 이상의 유혹이 있었으니 마음을 굳건히 하자. 80년생 새사람보다 옛사람이 낫다. 92년생 달은 차면 기운다는 말이.



45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것이다. 57년생 그냥 피는 꽃은 없으니. 69년생 위장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1년생 그칠 줄 아는 것은 어려운 일. 93년생 시작과 결과는 같은 권역이라 볼 수도 있는데.



46년생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이다. 58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70년생 계획을 세워야 나아갈 수 있으니 결과부터 챙기지 마라. 82년생 눈치보다는 꾸준히 나가다 보면 승리한다. 94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47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59년생 숨겨왔던 숨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 71년생 신세진 이에게 은혜를 갚는 날이다. 83년생 울적한 마음을 솔솔 털어내줘야 어찌랴. 95년생 돈거래는 근심을 자초하는 시작.



## 김상회의四季 무재칠시(無財七施)

무재칠시(無財七施)는 재물이 아니라도 타인에게 또는 사찰이나 여러 사회기관에 베풀을 수 있음을 뜻하는 불가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불가의 가르침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누가 부자로 살거나 명예가 높다면 이는 반드시 전생의 지은 원인에 관한 결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면 이 역시 전생에 지은 것을 이생에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언제라도 내가 짓고 말하고 하는 행위와 생각들을 잘 알아차리며 행할 것을 강조한다. 석가모니가 계시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복락과 괴로움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때에도 어떤 이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 무슨 이유인지를 석가모니를 찾아가 물었다. 그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은 탓이라고 말씀한다. 그러자 그는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를 말씀했다.

첫째는 화안시(和顔施)이니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게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言語施)로 사랑과 칭찬 격려의 말로서 베풀 수 있음을. 셋째는 심시(心施)이니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眼視)이니 호의를 담아 보는 것으로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身施)로서 남의 짐을 들어 준다거나 하여 몸으로 일을 돕는 것. 여섯째는 좌시(座施)로서 앉을 자리나 누울 방을 양보하거나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 줌이요, 일곱째는 찰시(察施)로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이니 "내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나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라고 했다. 위 얘기는 불교의 경전 '잡보장경'에서 재물이 아니어도 남을 도울 수 있음을 알려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열정과 열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1	9	3	6				
	6			4				
	2				8			3
	4							9
		7		1		6		
	8							5
2			6					4
				2				8
			8	7	5	2		1

		1	6		5		9		2
			4	2					6
	5				9				
		8				2			
	4								1
				6			5		
					2				9
8						3	7		
6		7		1			4	8	

1	8	2	9	7	8	7	6	9
9	8	6	1	2	7	5	7	8
5	7	7	8	6	9	8	1	2
7	9	8	6	9	7	2	8	1
8	2	9	7	1	5	7	8	6
7	6	1	2	8	8	9	7	5
8	9	7	8	5	1	6	7	7
6	1	5	7	7	2	8	9	8
2	7	8	9	8	6	1	9	7

8	8	7	6	1	9	7	2	9
9	2	7	8	9	7	1	6	8
6	1	9	8	2	7	5	7	8
8	6	9	1	7	9	8	7	2
1	2	7	8	8	6	9	7	7
7	9	8	2	7	6	8	9	1
7	7	8	9	6	1	2	8	9
9	7	1	7	8	2	7	8	6
2	8	6	7	5	8	9	1	7